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맑음 

제목 : 친구들과 캠핑을 갔다. 4반 신수아 56번

오늘은 윤아와 이재은과 가희 캠핑을 갔다. 처음에는
 아침에 우리가족부터 차에 짐을 챙겼다. 그다음에는 윤아가
 족이 나와 차에 짐을 챙겼다. 그런데 재은에 가족은 아직 내
 지 안왔다. 윤아엄마는 재은에 이모에게 전화를 했다.
 재은에 가족은 좀 늦게 간다고 말했다. 그래서 윤아에 가족과 우리
 가족은 먼저 갔다. 우리가족과 윤아가족은 텐트를 치고 윤아와
 나는 심심해서 내가 갖고온 폭탄 게임을 했다. 한판을 했는데
 내가 이겼다. 그래서 난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폭탄 게임 신라
 고 생각했다. 그 때 재은과 내도 와서 같이 폭탄 게임을 했다.
 윤아 아버지가 해먹을 해주고 우리 아버지도 해주셨다. 우리들은 점심
 먹었다. 그리고 종 쳤다. 우리들은 계곡에 갔다. 거기서 계곡에서
 물총을 놀이를 했고 율령이도 잡아본 뒤에서 아예 계곡에 풍뎡
 을 봤다. 그리고 윤아 아버지가 돌솥다섯개를 돌솥기를 해보고 잘어터사
 람은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했다. 우리들은 돌솥기를 먹고 아이스크림
 먹었다. 우리들은 목욕을 하고서 저녁을 먹고 폭탄 게임을 즐기고 왔다.
 우리는 즐거운 날이다.

